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증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태국, 방콕 침수 지역 확산 우려

강물 범람으로 침수 피해 속출, 11만 3천명 대피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1-13)

태국 수도 방콕의 침수 사태가 계속되면서 시 동부의 공단들이 추가로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상류 지역의 강물이 방콕으로 유입되면서 방콕 북부와 동부 지역의 침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방콕을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강 인근의 저지대 주민 3천여명에 대해서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정부와 방콕 시 당국이 상류 지역에서 내려오는 강물을 동쪽으로 대거 배출하면서 동부 지역의 공단 2곳이 추가로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석 달 가까이 계속된 홍수로 태국 중부의 아유타야주와 빠툼타니주의 공단 7곳이 이미 완전히 침수돼 일본 기업 등 많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강물 배출 예정 경로인 방콕 동부 7개 구역과 방콕 북단의 락시, 돈므앙 구역은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다.

프라윗 찬오차 육군 참모총장은 "방콕 동부의 랏끄라방, 방찬 공단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홍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두 공단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잉락 친나왓 총리는 "홍수 사태가 앞으로 4~6주간 더 지속할 것"이라면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귀중품 등을 높이 1m 이상의 장소로 옮겨 놓으라고 당부했다.

침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채소와 과일 등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사재기 현상으로 시민들이 생수와 쌀 등 기본 생필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홍수로 설사와 피부병 등 수인성 질병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홍수로 태국 중부 아유타야주와 빠툼타니주, 방콕 등에서 11만 3천명이 임시 보호센터로 피신해 생활하고 있으며, 홍수 경보가 내려진 방콕 9개 구역의 학교들은 11월1일로 예정된 개학일을 2주 간 연기했다.

태국은 지난 7월25일부터 중·북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홍수로 373명이 숨졌고, 피해 규모가 최대 5천억바트(18조3천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종합).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3:9-10)

계속되어지는 홍수 피해로 이 땅의 참혹함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태국 땅을 주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무너져 버릴 것을 깨달아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태국 땅의 영혼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 받은 만한 영광의 날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당국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자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위기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기도 24:365제곡]

INSIDE



▶ 기획 4면
"도미니카 순회기도원정 보고"



▶ 인터뷰 5면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랑 전달자"
- 남병진 선교사

▶ 관련기사 3면



김용의 선교사 컬럼

“믿음의 근거는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 없이 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어마어마한 명령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또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는 엄청난 명령을 열한 제자들에게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하반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최고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3장~17장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시고 꿈꾸셨던 아름다운 일들,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은, 즉,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 대화를 듣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7)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요 17:6)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사람들, 즉 주님이 십자가 구원으로 사신 사람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때가 차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복음의 길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어떤 체험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완전하신 십자가 공로,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안전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핏 값 주고 산 우리를 누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롬 8:35)

세상이 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으로 한 운명이 된 모습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완전한 동행이 가능하도록 십자가, 가장 완전한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택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말씀에만 의지하여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 생명의 떡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왕따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뉴욕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고후 3:4**

자유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당할까? 뉴욕의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메트로 사역회(Metro Ministries)’는 예상밖의 상황을 만났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더 거센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어떤 사역자는 폭행을 당했고, 어떤 사역자는 칼에 찔렸으며, 어떤 여성 사역자는 강간을 당했고, 심지어 어떤 사역자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살해되기도 하였다.

그 선교 단체의 책임자인 빌 윌슨(Bill Wilson) 목사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몇 차례 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렸다. 심지어 그는 노숙자들을 돌보다가 결핵에 감염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악(惡)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손을 뻗고 있다.

뉴욕의 부록클린 근처 빈민촌에 사는 15세 소녀 데비는 오늘날 자유국가의 수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애들이 갠단에 들라고 엄청 괴롭히며 강요하거든요. 그들의 강요를 거부한다는 것은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복음전도가 박해를 낳지만, 때로 그것이 더 강인한 그리스도의 증인을 낳는다.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시도들이 그들을 오히려 더 결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가? 그것도 안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병이 그런 현실에 꺾일 수 없다.

당신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담대하게 믿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 큰 소리로 선포하겠는가?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각)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어디로 가야하지?...“내게로 오라”

2011년 7월 1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가장 복잡한 전철역 가운데 하나인 ‘신주쿠 에키’. 일상의 정해진 시간과 계획을 좇아 오고가는 사람들의 풍경이 활영됐다. 검은색 가방을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중년 신사. 핸드폰을 오른손에 쥐고 걸어가는 소년. 물끄러미 뭔가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는 소녀. 그리고 갈아타는 전철노선을 가리키는 이정표 등. 얼마 전 후쿠시마 강진과 쓰나미로 큰 충격을 받았던 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어느새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현실을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이 보인다. 어디 그들만의 모습일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세상의 틀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사 43:7)

사진: WMM / 글: 일본 리턴(Return) 팀

십자가만 사랑하며

교회 개척 전도여행을 다녀오다³

“배고픔과 체력의 한계가 절정에 달했다. 그때 팀원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서혜진 선교사 (티앤알미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지를 건네고 받으시는 분들 옆에 계속 같이 올라갔다. 계단 끝에 도착할 때까지 허가 꼬이기도 했지만,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순종하며 선포했다.

“나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지옥의 심판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안에서만 진정한 죄로 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참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기쁜 소식이 내가 되어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생명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등등. 전도지를 나눠드리며 말했더니 어떤 할아버지는 “내가 신이다!”, 어떤 분은 “나 대학 다녀서 다 알아!”라며 짜증을 냈다.

어떤 분은 활짝 웃으시며 “저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나요?” 라고 되물었다. “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야기 했더니 얼굴이 싸늘해진 채로 “그럼 됐어요.” 하고 종종 사라지는 분.

나의 얼굴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며 “나 불교 믿어요, 아무 종교나 다 좋지 뭐 그래요” 말하는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분 안에만 참 평안이 있어요.” 말씀드렸더니 조용히 전도지를 받고 읽으며 가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끄럽고 어색한 마음은 사라지고, 전하면 전할수록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다. ‘복음을 하나 같이 열이면 열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이들의 영혼이 오늘도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시는구나.’ 배고고프고, 덥고, 빨리 집이 있는 베이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오랜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셨는데 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이 몇 시간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돌아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한 공원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말씀기도와 속소로 정하고 짐을 풀고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다양한 고백과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간혀 있었던 나의 시야

들과 생각을 깨뜨리셨던 시간이었다.”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들간의 교체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틀에 매여 하루가 진행되는 것 같다.” “이동이 너무 잦아 힘든 건 사실이다. 한 곳에 정착해서 직접 집으로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싶다.”

이를 통해 이번 아웃리치팀으로 명명된 ‘반석교회’ 성도간에 교체함이 부족했던 점과 정해진 일정표의 틀에 매여 있었던 점을 보게 하셨다. 충분한 양식 없이 이동이 잦아 아이들을 비롯한 지체들의 몸이 많이 지쳐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때라도 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에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머물게 하신 이 장소에서 주님이 옮기게 하실 때까지 머물기로 결정하고, 1시간 정도 정탐했다. 주위의 마을 상황을 파악한 후 돌아와 정탐한 내용을 나누고 어떻게 어느 쪽으로 전도하러 나가면 좋을지 기도하며 결정하기로 하였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누구의 권위로 내려진 지시나 명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십자가 안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한 마음으로 모아진 의견에 함께 어떤 불만도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다들 배고픔과 체력의 한계가 절정에 달했다. 내일 전도 나갈 힘조차 다 소진된 상태였다. 그날 저녁, 주님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셨다. 따뜻한 찜 감자 한 봉지와 복숭아 3개, 자두 4개. 우리가 묵고 있었던 정자에 놀러 오셨던 할머니 중 한 분이 주신 것이다. 이 엘리야의 살아있는 까마귀를 경험하면서 반석교회 모두가 감동했다.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경험하였기에 눈물이 났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시고 돌보심을 찬양했다.

다음날 아침. 감자로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전 내내 다들 쓰러져 누워있다 배고프면 물마시고 또 다시 누워있음을 반복했다. 예찬이가 자주 배고프다고 엄마에게 징징거리는 것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쳐다보았다. 기도만 하며 있어야 하는 상황들... 육체적으로나 존재적으로 가장 소망 없는 절망의 끝을 경험하고 있던 그때, 문득 팀원들 한분 한분이 눈에 들어왔다. 십자가만이 자신의 유일한 만족임을 고백하는 그들. 세상에서는 비천한 것처럼 보이나,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고 사는 행복자임을 눈물로 고백하는 그들. 어떠한 화려한 집보다 초막보다 주님이 좋다고 고백하는 그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인도하시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 정말 이런 동역자들이라면 평생 함께 해도 행복하겠다...” 종신토록 하늘 가족으로 함께 할 지체들이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보화들이었는지를 ‘야다’(히브리어 ‘체험하여 알다’는 뜻. 편집자)하여 알게 하셨다.

교회개척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누가 물으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다. “돈? 아니요. 건물? 아니요. 다른 것 필요치 않아요. 진짜 필요한건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이 확신 하나로 믿음의 순종 내어드리지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 수준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열혈 남짓한 아웃리치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께 돌아오는 성도들과 교회가 대구 땅에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돌아올 때에도 믿음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전해도 듣지 않는 영혼들 속에 과연 열매가 맺어질까?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닌 주님이 거두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대구 땅을 주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교회개척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며 돌아오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께만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린다.<끝>

선교통신

내몽골대규모시위지역,교회개척있따

성경 등 기독교서적과 겨울철 생활품 필요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올 상반기 중국 내 몽골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내몽골의 S 지역에 새로운 개척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 성도들이 거주지를 옮기며 흩어지면서 새로이 정착한 곳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성도들이 이주한 지역이 도시 외곽에 있는 시골에 위치해 각종 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은 물론 성경이나 기독교서적 등도 구하기 어려운 곳으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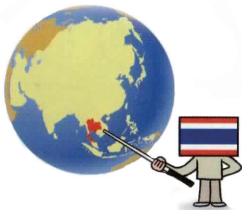
이 소식통은 “시골지역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추위, 가을철에도 겨울옷을 비롯해 교회학교에서 사용할 신양서적이나 주일학교 자료, 문구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개척되는 교회들이 서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과 도움이 없다”며 “이는 정부에서 큰 모임이나 서로 연합조직을 가장 경계하며 막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 내 교회가 아니면 모두 남처럼 외면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1면에 이어 - 태국은 어떤 나라인가?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Thailand



면적 51만3천㎢(5.2배)
인구 6천814만(1.4배)
도시화 34%
종족 동남아시아인 81.0% 동아시아인 10.8% 말레이족 6.1% 티베트-버마족 1.2% 기타 0.9%
종교 불교 85.32% 이슬람교 7.9% 무종교 2.4% 동양종교 1.8%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Operation World 2010>

인도차이나 반도 가운데에 있는 임헌 군주국이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이다.

태국은 '자유 땅(land of free)'이라는 뜻이다. 주변국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을 때 태국은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의 고질적인 부패와 삼림 남벌, 미약 밀매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다.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불쌍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자.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기획 - 도미니카 순회기도원정 보고



“도미니카 성도들, 기도 이후에 우상으로 삼던 물건 버려”

52일간의 느헤미야52기도에 도미니카 교회 20여개 참여 20대에서 60대 성도로 구성된 한국 순회기도팀에 감동과 충격

“느헤미야52기도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이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지난 8월15일부터 10월5일까지 52일 동안 진행된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한 도미니카공화국 자니리스 전도사의 말이다. 자니리스는 이 기간 동안 기도에 참여하며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기쁨 외에도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절감하고 있다. 더욱이 함께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도 자신의 집에 쌓아두었던 부적과 같은 우상들을 들고 나와 버리는 등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교자원은행 선교단체인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JSMIN)는 중남미지역에 파송한 순회기도팀이 최근 현지에서 느헤미야52기도를 마치고 이같은 현지 소식을 전해왔다고 최근 밝혔다.

우고 할아버지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동안 영적으로 큰 도전과 감동이 있었으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파를 뛰어넘어 하나되어 연합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온 지원군(순회기도팀)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모습에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국내선교자원을 발굴, 국내외 선교단체 및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는 지난 8월 전도사, 권사, 집사, 청년 등 20대에서 60대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5명의 순회기도팀을 중남미지역에 3개월간의 일정으로 파송한 바 있다.

이들의 순회사역을 요청한 곳은 도미니카공화국 및 아이티와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채덕 선교사.

전 선교사는 “변화되지 않는 현지인 사역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던 중 순회선교단 미주지부의 아웃리치팀에 이어 요셉의창고를 통해 순회기도팀과 동역하게 됐지만, 처음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했다”고. 그러나 52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그 염려는 감격으로 바뀌었다.

“사역자들의 마음의 중심축이 바뀌는 것을 봤다.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이같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중남미 전역에 중보기도를 통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미니카공화국 산티아고에서 진행된 느헤미야52기도에 현지의 살롬교회, 파인애플교회, 라피나교회 등 현지인 교회 20여개와 한인교회에서 수백여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다음 세대 스토리

“하나님, 다음에는 금식 잘 지키고 기도 잘 할게요”

나는 어른들의 추천으로 1일 ‘느헤미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됐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셨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고 성경책을 보다가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게 됐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보고 울며 금식 하며 기도했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번도 안해 본 금식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느헤미야52기도를 하는 하루 동안 금식을 했다. 처음에는 그리 힘들지 않았

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어려웠다. 할아버지가 목포에서 사오신 봉어빵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2개를 먹어 버렸다. 주님께 너무 죄송했다.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 가족들은 아무도 안 먹었는데 나 혼자 먹었고 특히 느헤미야인 내가 먹었기 때문에 더 속상했다. 다음부터는 금식도 제대로 하고 기도도 잘해야겠다. 또 예배시간에 잔 것, 장난한 것, 다른 생각한 것을 주님께 다 회개한다. 다음에 1일 느헤미야를 할 때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겠다. 한번 더 이런 기회가 와서, 가족들이 다 연합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나는 1일 느헤미야 책자 내용에서 새로운 사실도 한 가지 알게 됐다. 그동안 나는 미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인 어린이(사진 좌측 첫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전남 신안 압해도에 위치한 열방 선교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많은 줄 알았다. 그런데 기도정보 책자를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도 마음은 숨기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겉부분에 신경을 쓰는 일이 많다. 앞으로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살겠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에 처음 금식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느헤미야52기도 시간에 많이 참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에 기도하면 또 금식을 해야겠다. 그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끝나고 먹어야

겠다. “하나님, 저 강인이예요 금식을 한다고 했는데 봉어빵을 먹었어요. 죄송해요. 죄를 지었어요.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주세요. 오직 십자가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기도할 때 졸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금식할 때 먹을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부터 약속 지키겠습니다. 빨리오세요. 주님! 마라나타”

강인(10. 초 3)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너 **나눔&나눔**

“싼 맛(?)에 쓰임 받는 자, 그러나 축복의 통로”

『1국에서 하나님의 사랑 전달자』
남병진 선교사

한 핏줄로 태어난 부모 형제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생활방식, 가치관, 어느 한 가지 비슷한 것이 없는 다른 민족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선교사는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은 자. 그 부르심으로 땅 끝에서 있는 주님의 사람 남병진 선교사가 한국에 잠시 입국했을 때 만났다. 이제는 1국이 너무 익숙하고 그리운 땅이 되어버린 그는 문득 간혹 이런 생각을 하곤 했으며 미소를 지었다. “배달사고가 아닐까? 이 땅(1국)에서 태어났어야 했는데...”

- 선교사로서 믿음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출발 무렵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름대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어느 때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이런 것이 전부일까. 당시 대기업에서 3년 연속 우수사원으로 인정받으며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여겨질 때의 고민으로는 약간 뜬금 없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산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넘기던 97년, 98년 무렵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이것이 전부일까,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캄보디아에서 대인지뢰 얘기를 듣고 지뢰제거에 내 삶을 바쳐볼까도 생각해보기도 하는 등 많은 생각을 했지요. 그러다 뚜렷한 대안을 세우지 못한 채 회사를 퇴직하고, 선택한 일이 일명 ‘노가다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온 몸을 바쳐 일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그 일을 선택한 것이지요.”

- 물론 그 현장에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셨겠지요.
“계속 고민을 했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공사현장에서 온 몸이 바스라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한 갈증이 차고 넘쳤어요.”

- 그런데 어떻게 선교적 삶에 눈을 뜨게 되셨나요?
“당시 춘천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 벽에 나붙은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선교관학교 훈련생 모집 공고였습니니다. ‘바로 저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곤 연락해서 찾아갔죠. 면접관이 묻더군요. ‘왜 선교관학교를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답했죠. ‘지금까지 연결고리가 없어서 찾지 못한 진리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훈련 과정은 정말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당시 저는 강원도 홍천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면 선교관학교 과제물을 정리한다고 바빴어요.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쉬는 현장에서 저는 밤마다 1천쪽 가까운 미션 퍼스펙티브즈 책을 펴놓고 과제물을 정리하고, 필독서를 보면서 독후감을 썼는데, 정말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 그런 선교훈련 과정을 통해 1국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을 통해 그 땅에서 새로운 사역이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역인지도 모른채 문득 ‘나도 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학교측에 문의해봤죠. 그 일이 계기가 된 셈이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확증받고 싶어 구체적인 표징을 구하기도 했지요. 기도문이 주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 심정이었죠. 그러다 사도행전 8장의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읽던 중 주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정착하게 되셨는지요.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한 해전인 2002년에 땅밧기 기도로 현지 땅을 밟았어요. 하루는 현지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사람들이 거칠게 들어왔어요. 힌두교 극우파 사람들인 것 같았죠. 들어오자마자 마자 혀대로 예배드리던 교인들을 때리기 시작해 대부분의 교인들은 피신했어요. 그때 세 사람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자신이 맞으면 저 사람이 덜 맞겠지하는 그런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시간 가량 계속된 그들의 난동을 온 몸으로 맞으면서 분노와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으로 울면서 기도하게 되더군요. 내가 만약 10년 전에 이들에게 왔다면, 지금 이들은 예수를 믿게 됐을텐데, 내가 너무 늦게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욱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받게 되고,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됐어요.”



- 언제 파송받아 가셨나요.
“한국에서 2003년 1월에 파송을 받아,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 6월에 입국했어요. 한국인 선교사는 한 분도 없는 오지였는데, 이미 미국 선교사님이 이미 어느 정도 터를 닦아놓은 곳이어서 감사하며 정착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다소 있었죠. 물론 일정한 후원자나 단체와 연결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님만 의뢰한 선교적 삶이었기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옷 한 벌 사지도 못했지만, 그런 현실이 저를 어렵게 하고 주눅 들게 할 수는 없었어요. 부르신 주님이 확실하기에 그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 그런 과정을 어떻게 견뎠는지 궁금하네요.
“처음 정착하면서 한국처럼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없어서 육체적인 충격으로 어려움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설사가 몇지를 앓았어요. 그러다 몇 달 지나서 물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홍수가 난 마을에 가게 됐어요. 길바닥에 고인 물과 웅덩이 물이 뒤섞여 깨끗한 물이라곤 구경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물을 마시고 주님께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가지로 퍼서 한 모금 마셨어요. 현지인들도 다른 지방의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무 이상 없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그 마을은 홍수 뒤에 의례 몸살을 앓는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우리의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며, 은혜로 고비의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삶의 시간대를 보내며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한번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주님은 왜 나를 사용하실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싼 맛(?)에 쓴다’ 그런 표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같은 선교사를 사용하면 주님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은 씹쓸했죠. 그런데 주님이면 충분한데 뭐가 문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주님이죠.”

-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몇 년 전 주님의 허락으로 루마니아에서 파송받아 온 한 자매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자매 선교사가 데리고 있던 고아 몇 명을 함께 돌봐야했어요. 그때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땅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방치된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30여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주(州)의 크기가 한반도 면적 정도에 인구는 2배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고아원이 두 개 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 끝으로 그동안 현지에서 만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나요?
“지금은 너무 신실한 자매인데, 몇 년간 그 자매로 인해 어려움이 여러 차례 있었죠. 집안일을 돕고 있던 자매였는데, 아내가 만삭으로 출산을 앞둔 상태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이상하게도 세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런 돌발행동으로 저희 가정에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나 그 자매가 결혼하여 출산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성껏 그 산모와 아이를 보살필 수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며 정말 주님 은혜 아니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고백을 여러 차례 하게 됐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근거도, 목적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주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느헤미야52기도, 연합기도의 위력을 전해준 감동의 행진”

추석주간에 느헤미야52기도를 파수할 교회가 없으니 셋째 주로 예정된 우리 교회가 추석 주간에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기도24·365본부의 문의를 받았다. 즉시 호기롭게 O자(字), K자(字)를 날렸다. 그러나 곧바로 염려가 앞섰다. 가뜰이나 교인도 몇 명 남지 않았고, 9월말이면 교회를 폐쇄해야한다. 이 상황에서 144시간 연속기도라니. 느헤미야52기도 자체가 무리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가뜰이나 짧은 추석연휴. 다들 귀성길에 오를 터인데... 결국 기도제목 1번으로 기도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제목을 올렸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듯, 첫 시간부터 감동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 일면식도 없었던 중보기도학교 출신의 집사님 한 분이 주일 밤 첫 시간부터 내리 일곱 시간을 파수하셨다. 그렇게 시작된 연합기도의 위력을 고스란히 전해준 감동의 행진은, 지인인 이 목사님 가족 전원을 포함한 복음선교관 학교의 동역자 등 무려 20여명의 기도지원군이 원근각처

에서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토요일 마지막 기도 자리에 열 명의 기도자가 끝까지 파수하는 대역사를 창출해 내셨다. 그렇게 주님은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느헤미야 52기도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추석 당일, 가족들 모두가 할아버지 맥으로 향함에도 청주에서 혼자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온 중학교 2학년생 한 빛이. 역시 대구에서 혼자 달려와 2박 3일을 파수한 15살 짜리 주현이. 연 이들을 내리 파수한 맹 목사님네 세 딸들... 이들을 느헤미야52기도의 자리로 불러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랬다. 청소년복음수련회와 청소년문화복음학교(ACCESS)에서 만났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추석이건, 연휴이건 복음을 살아내는 하는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가지 않을 수 없게끔 역사하셨다. 아이들은 물론 기도의 자리에 연합한 기도자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모든 카드를 꺾어버리고 까마귀 신앙으로 살아보겠다며 믿음재정으로 돌입한지 두 달째. 궁핍이란 단어가 슬금슬금 친해보자고 다가 올 즈음이었고, 가족들 모두가 약간의 짜증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궁핍을 바라보던 때. 밥 먹고 돌아서면 금방 허기지는 이유를 계속 궁금해 하던 그 때 느헤미야52기도를 시작하며 가졌던 또 하나의 두려움이 일어났다.

“무엇으로 기도자들을 대접하지?” 그러면서도 “순회 기도팀 그냥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합니다.” 큰소리만 뽐뽐 쳤다. 그래도 이 허풍 같은 믿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은 식량과 부식과 간식 등등을 골고루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셨다.

또 한 번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주님은 선교사로 헌신한 우리 가족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비록 이 땅에서 열방의 빛 된 교회는 아무 열매도 거둔 것 없이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족 모두 한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셨다(롬 15:5-6).

또 느헤미야52기도 주간에 약속의 말씀으로는 신 30: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확증하셨다.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시작될 열방가운데 빛이 될 교회와 열방기도센터를 마음에 품게 하셨다.

느헤미야52주(週) 기도를 마치면서 느헤미야52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 번 앉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그때 새롭게 시작되는 느헤미야52일(日) 기도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허락하신 자리에 가족 전원이 느헤미야로 서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마음을 확정해 주셨다. 복음과 무관한 목회자, 성도들로 살아가던 우리 교회와 가족들에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들게 하셨다. 초등학교부터 할머니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입으로 열방을 향해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52기도의 자리는 두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하고 완전하게 조치된 은혜의 자리였다. 주님이 행하셨고, 또 계속하여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 번 선한 뜻을 이루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한다.

김형근 목사

따라 읽는 말씀기도(26) - 하나님의 전쟁 양상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이 코너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시간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편집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 더불어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막기 위해 험박과 회유, 공격과 위협, 그리고 중상모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훼방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방법 외 다른 길은 없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느 2:8,12)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 2:17-18)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회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말씀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1.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뜻을 발견한 느헤미야의 순종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기도하자.

2.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전쟁을 수행할 때에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도록 기도하자. 특히 서로 연합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기도하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출처: 기도24·365 제공>

2011년 11월의 느헤미야 52기도 참여교회

- ◇ 45주차 (11월 7일-12일)
 - 성도교회 - 느헤미야 이흥범 목사
 - 청주임마누엘감리교회 - 느헤미야 김현중 전도사
 - 준향감리교회 - 느헤미야 이기현 목사
 - 광주참좋은교회 - 느헤미야 지영훈 목사
 - 나무와씨앗교회 - 느헤미야 김진혁 간사

- ◇ 46주차 (11월 14일-19일)
 - 실로암성결교회 - 느헤미야 김중희 목사
 - 하묘교회 - 느헤미야 김기철 목사
 - 나무와씨앗교회 - 느헤미야 김진혁 간사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느헤미야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기도로 선교할 중보기도 선교사를 찾습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주님께 기도할 단기 선교사 찾는 선교현장 늘어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최근 중보기도자 요청 증가 추세”

“복음의 돌과를 위해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릴 중보기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최근 선교현장에서 선교의 주체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현장에서 기도할 중보기도 선교사를 요청하는 선교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선교자원은행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대표 황적수 선교사)는 최근 중보기도로 단혀 있는 선교현장의 문을 두드릴 중보기도 단기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은사를 가진 사역자 파송 요청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중보기도로 섬길 동역자를 요청하는 선교현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단체에 중보기도자 파송을 요청한 선교사들은 아시아의 북인도, 아프리카 감비아와 M국, 중동 Y국 등이 있다. 중미 지역 도미니카는 최근 순회기도팀과 함께 사역한 이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교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 선교사의 파송을 요청하고 있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중보기도팀을 파송하는 사례도 있다. 순회선교단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팡밭기 기도원정대를 구성, 매년 수십개국 선교현장에 파송하고 있다. 이들은 2-3주 정도의 일정으로 선교현장에서 말씀기도, 팡밭기 기도, 24365기도, 느헤미야52기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도로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지인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한다. 이때 통역자가 있든 없든 기도의 자리에서 연합의 기쁨으로 누리게된다는 것이 선교단측이 전해주는 현장 반응이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중보기도팀을 구성, 선교현장을 지원하고 돌아오는 사례도 있다. 울주 서울 총신감리교회(배철희 목사)는 여성도를 중심으로 순회기도팀을 구성해 느헤미야52기도를 참여하는 사이판 한인교회에 다녀오기도 했다.

한편, 기도24365본부는 최근 하루 24시간 연속으로 구체적인 기도정보를 읽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복음과 영적전쟁’ ‘복음의 영광’ 등의 기도정보로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복음과 영적전쟁’의 경우, 외국어로도 번역됐다. 번역된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우르두어, 태국어 등 10여종이다.

순회기도팀이나 해외 단기 선교사를 요청은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로 문의하면 된다. ☎ 070-7417-4156~7, 010-2389-4156, 웹사이트 : cafe.naver.com/js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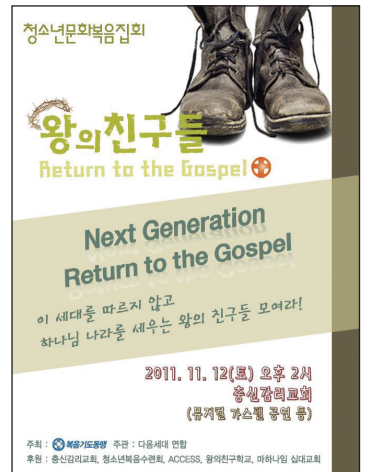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복음집회 '다음세대 다시복음앞에'

- 11월 12일, 청소년 단체 연합으로 청소년
복음의 증인을 세운다

청소년 문화복음집회 '다음세대 다시복음앞에'가 이달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총신감리교회(담임 배철희 목사,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열린다.

오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사전모임으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청소년 세대의 복음과 기도의 증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의 친구들이 모이게 될 이번 연합집회는 총신감리교회, 청소년 복음수련회, ACCESS청소년문화복음학교(대표 김관영 목사), 왕의 친구학교(순회선교단 다음세대팀), 마하나임심대교회(신유정 목사) 등의 후원과 복음기도동맹 주최, 다음세대 연합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날 집회는 1일부터 11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요한복음을 무지컬로 한 문화행동 아트리오의 '가스펠' 공연을 비롯 메세지와 복음기도 동맹 선언문 및 행동강령 약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집회의 참석 대상은 중학생 이상 청소년은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복음기도동맹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gnpacafe/>)에 가입 후 청소년 문화복음집회 안내글에 댓글에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부모님이 함께 동반 할 수도 있으나 집회 당일 참석자 인원이 많을 경우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 010-4264-4894



올레이주민한글학교, 경기도 용인에서 개교

티엔알미션, 태국인 대상 12주 과정으로 운영

변화와회복 선교공동체 티엔알미션(대표 : 박종진 선교사)은 지난 달 2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생수사랑회 장애인시설 공동체에서 올레이주민한글학교를 시작했다.

현재 태국 이주민 5명으로 시작된 이 학교는 4명의 교사와 1명의 통역 섭김으로 구성, 문을 열었다. 지난달 23일 개교 감사예배 후 첫 수업을 시작한 이 학교는 올 1월 중순까지 약 12주 가량 매주 주일 저녁마다 수업이 진행된다. 추가모집은 11월 한 달 동안만 받는다.

올레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 이 학교 이름은 한글을 배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주민 한글학교를 섬기는 안승용 선교사는 “이 학교는 장소를 정해놓고 학생들을 부르는 형태가 아닌 공장, 기숙사, 숙소 등 3~4명 모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용인 외에 다른 지역에도 요청하는 곳이 있어 또 다른 학교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부르짖는 중보기도자들”

‘다시복음앞에’연합집회 위한 70여명 중보기도자 활동중



“참석하실 강사님 한 분이 희귀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보해주세요.”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의 중보기도자들에게 전달된 기도제목 중 일부분이다. 10여 페이지가 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도제목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중보기도자들을 위한 만남이 지난달 26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수색 한마음교회(담임목사 서춘길)에서 진행됐다. 국내외 70여명으로 구성된 중보기도자들 중 약 20여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이날 함께 모여 말씀기도와 영상메시지, 그리고 간단한 저녁식사와 짝막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복음기도동맹 사무국의 정은혜 선교사는 참석한 분들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도 주님이 부르셔서 그냥 아멘했을 뿐인데, 주님의 엄청난 크신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주로 하셨다며 “그분의 소

원이 나의 소원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중보기도의 자리”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첫 모임의 소감을 전했다.

그 동안 기도24365본부가 10일 단위로 작성하여 중보기도자들에게 이메일이나 기도24365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온 ‘다시복음앞에’ 집회를 위한 중보기도제목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부터는 중보기도자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가 병행 될 것이라고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측은 전했다.

한편, 중보기도제목은 포스터 발송과 제작, 행사 등록과 집회 안내, 각종 인쇄물과 행사준비에 들어가는 제작비를 위한 기도 등 구체적인 이슈와 일정 외에,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대한 말씀과 기도제목을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해 기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복음의 영광 **느헤미야52기도 기도정보집**
「복음의 영광」 출간

기도24365본부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 발간하는 이 책자는
‘복음의 영광은 당신에게 실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매시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도정보집이다.

총192쪽 | 복음과기도미디어 | 값6,000원
구입문의 ☎ 070-7417-0408~9 20,000원 이상 주문시 배송료 무료

뷰즈 인 퍼포먼스

Views in Performance

『뮤지컬 '가스펠'(Gospel)』

국내 첫 요한복음 뮤지컬 '가스펠'

승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을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이나 성도들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11월1일부터 11일까지 요한복음을 뮤지컬화한 '가스펠' 공연을 추천한다. 뮤지컬 가스펠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문화행동 아트리가 준비한 여섯 번째 1.1.1 문화전도 프로젝트 공연이다. 1.1.1이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아트리의 존재 이유를 드러낸 구호.

뮤지컬 가스펠은 요한복음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순전하게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휴머니즘과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왜곡된 예수의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세상과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만왕의 왕임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 11일 동안 서울 충신감리교회(지하철 2.3호선 14번 출구)에서 열리는 가스펠의 감상을 위한 몇 가지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

가스펠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7가지 사인에 주목하고 있다. '나를 따르라'(요1:43, 21:22)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님이 밝히시는 그 모습을 알아야 한다. 그 일곱 가지 사인은 다음과 같다.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나는 생명의 빛이다.
- 나는 양의 문이다.
- 나는 생명의 떡이다.
- 나는 선한 목자다.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이다"라는 형태의 말씀으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의 모습을 주목해보자. 위의 일곱 가지 천명에는 일곱 개의 기적, 즉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표적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천명과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뮤지컬 가스펠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꺼이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못 박혀 계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적 죄인인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것이다. 십자가에서 죄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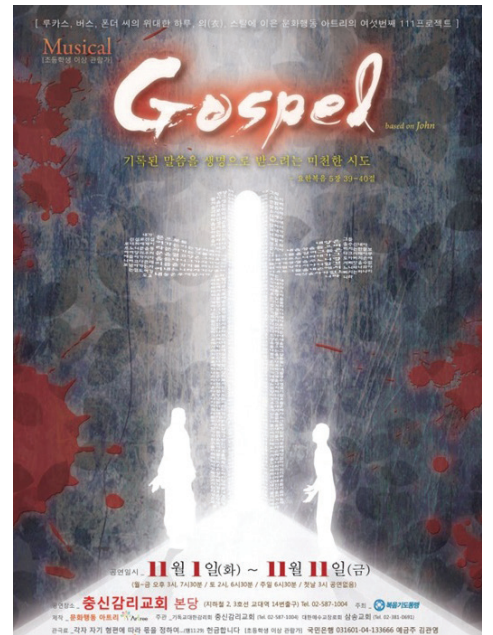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트리는 이 공연을 위해 매일같이 말씀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문화선교사들을 통해 오직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의 영광, 능력, 축복을 확증하고자 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아트리는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수천만원을 들여 무대세트를 세우고 공연을 준비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이 공연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트리 대표 김관영 목사의 고백이다. 아트리는 이를 위해 모든 공연을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헌금제로 운영한다. 주님이 주시는 까마귀의 공급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은 소망 없이 사는 이들이 영원한 빛이며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뮤지컬 가스펠의 300증인이 되어 함께 그 일을 섬길 수 있다. 모금계좌는 국민은행 031601-04-133666 (예금주: 김관영)이다. 문의 및 공연 예약 : 010-2652-4365 www.gospelartree.com.

11일까지 진행되는 공연을 놓친 사람에게는 다음날인 12일 하루의 기회가 주어진다. 단, 청소년인 자녀가 동반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복음집회에서 청소년 증인세대를 세우기 위해 한 번의 공연이 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 공연을 볼 수 있다면 은혜 얻은 자이다.



후원자 명단

(2011년 10월 14일 ~ 26일, 가나다 순)

△개인

김기석 박경희 백승영 유수경 이설옥 이창기 장정실 홍승표 무명X3

△교회 및 단체

나무와씨앗교회 서울제일교회 주새힘교회 복음기도모임

복음기도신문은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소망하는 동역자들의 헌금과 기도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 · 구독 · 헌금 · 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향동7가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일시 2011년 12월 13일(화) - 16일(금)

장소 선한목자교회(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강사 권영조 선교사(사이판복음교회),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류응렬 교수(총신신학대학원),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 박영철 교수(침례신학대학원), 백부장 선교사(Y국), 송신호 목사(한국제자훈련원), 송천호 목사(미국 월드비전), 안정규 선교사(케냐),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유병국 선교사(WEC국제선교동원본부), 유명기 교수(복음기도신학연구소) '가나다순', ※ 예배'리턴'(return), 뮤지컬'가스펠'(Gospel), 그 외 복음과 기도의 증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세아6:1)

'다시 복음 앞에'

RETURN to the GOSPEL '오직복음으로'

|문의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070-7447-0301, 070-7417-0815, 010-9440-4365,

010-4167-0301, 010-4167-0374 / E-mail: gpall@paran.com

website: www.gospelprayer.net (웹사이트에서 참가자 선착순 접수중)

|주최·주관 복음기도동맹

|후원 깃피플, 기도24365, 리턴, 문화행동아트리,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선한목자교회, 순회선교단,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천보산민족기도원, 충신감리교회, T&R미션, WEC 국제선교회 가나다순,

*복음기도동맹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651001-01-319982 국민은행, 조완순(복음기도동맹)